

# 교회의 정통으로 돌아옴

(목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3

## 서머나에 있는 교회

성경: 계 2:8-11, 1:18, 22:13

### I. 서머나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다 — 계 2:8-11.

A. 헬라어로 '서머나'는 '몰약'을 의미하며, 몰약은 성경의 그림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는 고난당하는 교회였다 — 계 2:10.

1. 박해를 받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달콤함과 향기 안에서 고난을 겪었다.
2. 이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환난 가운데 있었고, 그분의 고난의 교통 안에 있었다 — 계 1:9, 빌 3:10.
3. 서머나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이 고난을 겪으신 것처럼 고난을 겪었으며, 따라서 그분의 고난의 연속이 되었다 — 골 1:24.
  - a.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한 종류는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고난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셨다. 다른 한 종류는 교회를 산출하시고 건축하시기 위한 고난이다. 이것은 사도들과 믿는 이들이 채울 필요가 있는 고난이다.
  - b.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골 1:24)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의해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단체적으로 반드시 완성되어야 한다.
  - c. 서머나 교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단체적인 연속을 본다.
  - d. 이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의 증거였다 — 계 1:2, 9, 19:10.

B.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에게 게서 비방'을 받았다 — 계 2:9.

1. 유대교도들은 고난당하는 교회를 악의를 가지고 흠잡아 비방했다. 그들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과 제사 의식과 물질적인 성전으로 이루어진 유대교의 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완강하게 주장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예표이며,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시고 대치하신 것들이었다.
2.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새 언약 아래 있는 교회는 유대교도들의 종교적인 실행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도들은 교회를 비방하며 비판했다.
3. 원칙적인 면에서 이것은 오늘날 종교적인 사람들이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을 비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왜냐하면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은 주님을 추구하고, 영과 생명 안에서 그분을 따르며, 어떠한 종교 제도를 관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4. 요한복음 15장 1절, 4절과 5절, 18절부터 24절까지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포도나무와 가지들은 종교적인 세상(유대교)으로부터 반대를 받는다. 오늘날 기독교는 종교적인 세상, 종교적인 조직으로서,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뿐 아니라 포도나무의 가지들인 교회를 반대한다 — 비교 갈 1:4.

C. 교회가 겪는 박해는 대적자인 사탄에 의해 선동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회당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비방하는 자인 마귀에게 이용된 로마 제국에 의해 절정에 이르렀다. 고난당하는 교회를 박해한 것은 사탄적인 종교와 마귀적인 정치가 합작한 것이었다 — 계 2:9-10.

- D.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주 예수님은 “내가 너의 환난...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다 — 계 2:9.
1. 환난이 교회의 생명을 시험하기 때문에, 환난은 교회에게 소중한 것이다.
  2. 교회가 환난을 당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목적은 그분의 부활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분의 생명의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요 11:25, 계 1:18, 엡 3:8.

## II.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자신이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다 — 계 2:8.

- A.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시라는 사실은 그분께서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1.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반드시 주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며,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2. 박해하는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다. 어떤 것도 그분을 앞설 수 없고, 어떤 것도 그분보다 나중에 존재할 수 없다. 모든 것은 그분께서 통제하시는 한계 안에 있다.
- B.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주님의 선포는 처음인 창조와 마지막인 완성을 함축하며,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함축한다.
1. 이것은 고난당하는 서머나 교회를 강화하는 선포인데, 이 교회는 순교를 체험하고 순교를 겪고 있었다.
  2. 순교당하는 성도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완성하실 분이시자, 육체 되시고 이 땅에서 사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분을 보는 것이다. 그러한 이상이 순교자들을 붙잡아 주어 고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게 한다 — 계 2:10.
  3.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모두 주 예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 곧 시작과 끝이심을 믿어야 한다. 주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서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 계 22:13.
- C.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므로,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분이시다 — 계 2:8, 1:18.
1. 주 예수님은 죽음을 겪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은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지만, 그분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었다 — 행 2:24, 요 11:25.
  2.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 있으며” — 계 1:18.
    - a. 부활은 죽음을 통과하면서도 여전히 살아 있는 생명이다.
    - b.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날의 연장(延長)이다. 그분은 부활 안에서 영원무궁토록 존재하실 것이다.
  3. 부활하신 그리스도, 곧 살아 계신 분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신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들도 그분처럼 살아 있으면서, 생명으로 충만하고 죽음을 이겨야 한다 — 딤후 3:15.
  4.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 계신 것이 그분의 증거이다. 우리도 살아 있을수록, 더욱더 살아 계신 예수님의 증거가 된다 — 계 1:2, 9, 19:10.
  5. 살아 있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뿐 아니라 생명 공급을 얻어야 한다. 살아 계신 분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이실 뿐 아니라 생명 공급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교회들을 돌보신다 — 요 4:10, 14, 6:48, 51, 계 2:7, 17, 3:20.
- D.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신 그리스도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 — 계 1:18.
1. 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마귀를 멸망시키셨으며, 이제 죽음과 음부의 열쇠는 그분의 손에 있고, 그분은 무덤에 대해 승리하셨다 — 히 2:14, 계 1:18.

2. 주 예수님은 그분의 부활 안에서 죽음과 음부의 권세를 없애셨다. 죽음은 그분께 복종하며, 음부는 그분의 통제 아래 있다 — 계 1:18.
3. 오늘날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음부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부활 안에서 죽음을 없애 버리셨고 음부를 이기셨기 때문이다 — 히 2:14.
4. 그리스도는 죽음을 패배시키셨을 뿐 아니라 죽음을 없애 버리셨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망시키는 죽음과 죽음을 삼키는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없애 버리시고 죽음을 아무런 효력이 없게 만드셨음을 계시한다 — 히 2:14, 고전 15:52-54.

### III. “죽기까지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 계 2:10.

#### A. “죽기까지 충성하여라.”

1. 주님은 그분을 섬기는 모든 이들의 생명이 그분께 속하였다고 단언하신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죽기까지 충성해야만 하는 것이다.
2.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은 태도와 시간, 이 두 가지 문제이다.
  - a. 태도와 관련하여, 우리는 심지어 죽기까지 충성해야만 한다 — 계 12:11.
  - b. 시간과 관련하여, 우리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충성해야만 한다.

#### B.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1. 박해를 이기면서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 곧 생명의 면류관은 부활 생명의 능력(빌 3:10)인 이기는 힘을 가리킨다. 또한 이것은 이러한 이기는 이들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 즉 탁월한 부활에 이르렀다는 것(3:11)을 가리킨다.
2. 생명나무뿐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보상이 될 것이다 — 계 2:7, 10.
  - a.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내적인 것으로 공급을 위한 것이며, 생명의 면류관은 외적인 것으로 영광을 위한 것이다.
  - b. 생명나무와 생명의 면류관에 관한 약속들은 신성한 생명과 많이 관련되어 있다(요 1:4, 10:10, 11:25, 요일 5:11-13). 이 생명은 반드시 우리의 음식이 되어야 하며, 그럴 때 이 생명은 생명의 면류관으로서 우리의 표현과 영광스럽게 됨이 될 것이다.

##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 서머나 교회 — 부활 생명과 생명의 면류관

주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도록, 교회들을 선정하시는데 있어서 주권적이셨다. 그분은 소아시아의 일곱 도시,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를 선택하셨다. 헬라어에 의하면 각 도시의 이름은 매우 의미심장하며, 그 영적 의미와도 정확히 부합된다. 이미 지적했듯이, 에베소란 ‘바람직하다’는 뜻이며, 이는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귀했고 또 그분의 눈에 바람직했음을 가리킨다. 서머나는 헬라어로 ‘몰약’을 뜻한다. 몰약은 비유적으로 고난을 상징하는 향품이다. 성경의 예표에서 몰약은 그리스도의 달콤한 고난을 상징한다. 이와 같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였으며, 1세기 후반부터 4세기 초반까지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 있던 교회를 예시(豫示)한다. 이 박해받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달콤함과 향기 안에서 고난을 겪었다. 달리 말해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환난 안에 있었으며, 그분의 고난의 교통 안에 있었다. 서머나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께서 겪으셨던 것처럼 고난을 겪었으며, 그분의 고난의 연속이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이제 나는 여러

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라고 말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완성하고 있었다. 비록 아무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어 나갈 수는 없지만, 그분의 고난은 반드시 그분을 뒤따르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서머나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단체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본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님의 증거였다.

이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살펴보자.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 이시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고난받는 이 교회에게 자신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아무리 큰 고난을 통과하셨다 해도, 그 고난이 그분을 끝내거나 해를 입힐 수는 없었음을 뜻한다. 그분은 처음이셨고 결국 마지막이셨다. 교회는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영구히 존재하는 분이시며, 불변하는 분이심을 알아야만 한다.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그분은 여전하시다. 아무것도 그분을 앞설 수 없고 아무것도 그분 이후에 존재하지 못한다. 모든 것이 그분의 통제의 한계 안에 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자신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교회가 승리해야 함을 지적하고 계셨다. 교회는 어떤 유형의 고난에 의해서도 좌절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반드시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그 끝에 이르러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명과 머리이신 주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이다.

###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주님은 자신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살아나신’이란 말은 부활을 뜻한다. 주님은 죽음을 겪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지만, 죽음이 그분을 잡아 둘 수 없었다(행 2:24).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이시기 때문이다(요 11:25). 고난받는 교회 역시 모든 종류의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그분을 그러한 분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박해가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교회는 여전히 살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죽음을 능히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고난이나 박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우리를 죽이는 것뿐이다. 박해로 인한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 있다. 그러므로 주님은 고난받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네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나는 죽음에 이르도록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활로 이르는 출입문이었다. 내가 죽음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부활의 입구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박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죽게 되리라는 예상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죽음을 환영하고 기뻐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단 네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면 또한 부활의 입구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억해라.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다. 그분의 자격은 정확히 우리의 필요에 들어맞는다. 주님은 고난받는 교회에게 처음과 시작이실 뿐 아니라 마지막과 끝이시기도 하다. 당신은 박해를 겪고 있을 때마다 일어서서 선포해야 한다. “할렐루야! 나는 끝으로,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 나는 지금 막 부활의 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참이다.”(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타디, 11장, 141-143쪽)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이실 뿐 아니라, 시작과 끝이시다. 그분은 처음, 곧 시작에 있는 분이시고 또한 마지막, 곧 끝에 계신 분이시다. 이것은 그분께서 교회생활을 시작하신 후에 반드시 그것을 완성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 그분은 그분의 일을 완성하지 않은 채로 두지 않으실 것이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모두 주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주님은 그분의 회복에서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 그분은 살아 계신 분이시며, 죽은 적이 있으나 영원토록 살아 계실 것임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살아 계신 분’이시며, ‘죽은 적이 있으나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분’이신 것을 본다. 주님은 죽음을 거치셨지만 다시 사셨다. 그분은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지만, 죽음은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었다(행 2:24).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이시기 때문이다(요 11:25).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부활 안에서 영원히 살아 계실 것이다. 부활은 주님의 날의 연장(延長)이다. 그분은 부활 안에서 영원토록 존재하실 것이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분, 부활 안에 계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 반드시 살아 계신 분이셔야 한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분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살아 계신 분이시라는 것의 중요성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에 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 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온갖 종류의 죽음을 떠나기를 원하시며, 일어나 살아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신 분은 결코 죽으실 수 없다. 그분의 교회는 죽어 있어서도 안 되고, 죽임당해서도 안 된다. 반대로 그분의 교회는 반드시 항상 살아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 계신 분으로 누리기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분께서 영원히 사시는 것은 그분의 증거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거는 언제나 살아 있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한 지방의 교회가 살아 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증거를 갖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살아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살아 계신 예수님의 증거가 된다.

교회들 가운데 거니시는 그리스도는 교회들의 머리이시고 교회들을 소유하신 분이므로, 살아 계신 분, 생명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따라서 그분의 몸인 교회들도 살아 있고 신선하며 강해야 한다.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신 살아 계신 그리스도가 있다. 부활하신 분이신 우리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신다.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 계신다.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 살아 계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회복 안의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처럼 살아 있어야 하며, 생명으로 충만하고, 죽음을 이겨야 한다.

주 예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시다. 살아 있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뿐 아니라 생명 공급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어떤 음식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다지 살아 있지 못할 것이지만,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한다면 살아 있을 것이며 심지어 활력이 넘칠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는 음식을 먹는 것에서 나온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에게 그들의 음식과 생명 공급이신 그분 자신을 주심으로 교회들을 돌보신다. 그러므로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어진 주님의 일곱 서신들에서 살아 계신 분이신 주님은 먹는 것에 관한 세 가지 약속, 곧 생명나무(계 2:7)와 감추어진 만나(17절)와 풍성이 가득한 잔치(3:20)에 관한 약속을 주신다. 살아 있고자 한다면, 우리는 생명나무와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고, 그분을 잔치로 누려야 한다.

바로 고난받는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은 그분 자신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계시하신다. 고난받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그러한 분으로 알아야 한다. 이럴 때 교회는 온갖 종류의 고난을 견딜 수 있다. 박해가 아무리 심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살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죽음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고난이나 박해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박해로 인한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다. 주님은 죽기까지 박해를 받으셨다.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분은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부활의 문턱에 들어서신 것이었다. 이것은 고난받는 교회가 박해를 두려워하거나,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겁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오히려 고난받는 교회는 죽음을 환영하고 기뻐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면 또한 부활의 문턱에 있게 될 것이기 때

문이다. 우리는 박해를 겪을 때마다 반드시 일어나서 이렇게 선포해야 한다. “할렐루야! 저는 곧 부활의 문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교회에게 박해는 생명에 대한 시험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는 정도는 다만 박해에 의해서만 점검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박해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풍성을 가져온다. 주님께서 교회가 박해를 겪도록 허락하신 목적은 그분의 부활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분의 생명의 풍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주님의 부활 생명은 교회 안에 있다. 부활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 우리 안에는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것에 대해 이유나 변명을 댈 수 없다. 그보다 우리는 박해에 의해 패배당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 생명에 의해 이러한 박해를 승리에 찬 방식으로 감수해야 한다.

###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짐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주님은 또한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사람의 타락과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고, 이 죽음이 이제는 이 땅에서 운행하면서, 죄악된 모든 사람들을 음부로 모으고 있다. 죽음은 바닥에 있는 먼지를 모으는 데 사용되는 쓰레받기와 같고, 음부는 쓰레기통과 유사하다. 쓰레받기에 모아진 것은 모두 쓰레기통에 넣어진다. 이처럼 죽음은 모으는 것이고 음부는 지키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음부에 굴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패하셨고 부활 안에서 음부를 이기셨기 때문이다. 비록 음부가 그분을 붙잡아 두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무력했다(행 2:24). 그분께 죽음은 쓰는 것이 없고 음부는 능력이 없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같아야 한다. 교회생활 안에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는 그분의 손에 있다. 우리가 죽음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단순히 죽음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 죽음이 들어올 때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확인 요함)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님께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시고 행하실 입지와 기회와 자유로운 길을 드린다면, 죽음과 음부는 모두 그분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입지를 얻지 못하실 때마다, 죽음이 즉시 만연하게 되고 음부는 강력해져서 죽은 사람들을 붙잡아 둘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죽음은 그분께 복종하며, 음부는 그분의 통제 아래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한 죽음과 사탄과 음부와 무덤에 대한 그분의 승리였다(행 2:24). 사탄과 죽음과 음부와 무덤은 한 그룹을 형성한다.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의해 입증되시고 그분께서 성취하신 것이 성공적이었음이 증명되었을 뿐 아니라, 그분은 죽음과 사탄과 음부와 무덤에 대해 승리하셨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큰 염려와 어려움을 준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죽음을 이기셨고 사탄을 멸망시키셨다(히 2:14). 죽음과 음부의 열쇠는 이제 그분의 손에 있으며(계 1:18), 그분은 무덤에 대해 승리하셨다.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지방 교회들 가운데 거닐고 계시면서, 금등잔대인 교회들을 돌보고 계신다.(*신약의 결론, 영문판, 407장, 4153-4157쪽*)